



2026년 새해에 축복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요즘 한국은 많이 추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점점 가장 더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추위에도 캄보디아에서의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함께 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동역자님들 가정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캄보디아는 12월 25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각 교회들은 교회 여건에 따라 12월 중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지방의 모든 파트너십 교회들의 일정을 조정하여 제가 모두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태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각 교회가 조용하고 엄숙하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자체적으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그 크리스마스에 각 교회들은 저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덤낙까이 교회는 필리핀단기선교팀이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고, 프놈펜센터 교회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문품을 모아서 전쟁피난민을 위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캄보디아 가운데 충만해져서 더이상 범죄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뜨바엥안성제일



따워전궁교회



쫑벙교회



건달아리실교회



뜨러빼앙따속교회



덤낙까이교회



오산단트마이교회



CAJMC센터교회

국내단기선교

CAJMC 프놈펜 센터교회 교인들은 11월 9일 깜뽕짬 위얼제일교회로 국내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즐거운시간도 갖고 준비한 선물도 나누었습니다. 지방교회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도시의 교회가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도시의 형누나 언니오빠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커서 청년이 되었을때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왕복 6시간이 넘는 긴 여정속에 새벽에 출발해서 밤 9시넘어서 프놈펜에 돌아오는 힘든 일정이었지만 교인들이 모두 기쁨으로 섬겨주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방과후 교실/태권도 교육

매주 금요일은 조이풀스쿨 유치원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매주 목요일에는 깜뽕초등학교에서 방과후영어교실을 오산단트마이교회에서 태권도 교육을 합니다. 깜뽕초등학교까지 매주 2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교육적으로 소외된 시골지역은 방과후에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고 교육적인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깨달아리실교회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바닥에 엎드리어 공부하다가 한국의 아리실교회의 지원으로 책상을 놓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빛나는 눈빛으로 열심히 알파벳을 외우고, 또한 태권도 동작을 따라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보람이 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이 아니고, 한명한명 깊은 관계를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어린이들로 인식되었던 아이들이 누구누구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안에서 귀한 꿈을 꾸면서 캠보디아의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해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학금지원

캄보디아 청년들은 이미 사회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도시인 프놈펜에 와서 살아가다보니 가정의 지원은 어렵고 대학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고향에 오히려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그대로 주경야독의 삶을 살면서 숨쉴틈없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새로운 삶의 힘을 주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해에도 동역자님들의 도움으로 **다다** 자매(안성제일장로교회 윤정숙 장로님), **나렌** 자매(안성제일장로교회 김삼천 장로님), **끼어** 자매(동천교회), **웃싸** 자매(아리실교회, 노트북지원), **티다** 자매(전궁교회 다윗장학회), **빤냐/멘레악사** 어린이(전궁교회 다윗장학회), **풀** 어린이(최일권/이주영 집사님)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캄보디아 보통 대학들의 1년 학비는 100만원 내외의 금액입니다.(의대나 일부 특수한 대학은 3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한국의 학비에 비하면 적지만 캄보디아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비싼 금액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학비가 아니라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이 청년들이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다



나렌



끼어



웃싸



티다



빤냐



멘레악사



풀

선교지에서의 쉼, 안식년 여행!



안성제일장로교회의 지원으로 안식년을 맞아 가족여행을 씨엠립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를 와서 외국에서 힘들게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아이들이 여행지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함께 해준 아이들이 참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오랫만에 쉼을 누리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교단 장성숙 선교사님 선교지와 센터 방문을 통해 다른 선교사역을 견학하고 선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선교여정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센터교회 창립 6주년 감사예배!

1월 25일 주일은 CAJMC센터 교회의 6주년 감사예배로 드렸습니다. 2020년 1월 15일에 캄보디아에 도착해 첫 주일에는 가정예배로 드리고 두 번째 주일인 1월 26일 센터에서 첫 주일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6주년을 축하하며 예배 순서로 선교사가정의 특송이 있었고 함께 케잌 컷팅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처음 바베큐 파티 할때는 불판 하나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4개의 불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우리 CAJMC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복음의 큰 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제자훈련과 주일풍경!

황의명 선교사와 김경희 선교사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교회에서 리더들 교육과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매 주일 예배드리고 점심식사 후에는 리더들이 교회 곳곳에서 새신자 교육과 기초 제자훈련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놀이도 합니다. 점심식사 후 1-2시쯤 되면 다른교회 다니는 청년들 몇명이 자신들의 교회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로 와서 함께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하면서 교회가 동네 사랑방이 됩니다. 주일이면 꼭 자지껄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은 없지만 그래도 활기와 생기가 넘쳐 좋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즐겁게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고 주중에 세상에서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날들을 꿈꿔 봅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1. CAJMC센터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서 센터교회를 통해 캄보디아 지방 교회를 돋고 훗날 선교사 파송까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파트너십교회(뜨바엥안성제일, 따왁전궁, 덤낙까이, 쪽벙, 꺼달아리실, 오산단트마이, 위얼제일) 교회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주님안에서 선한목자로서 교회를 잘 이끌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방과후교실과 태권도 교육을 통해 만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어린이들 중에 공부에 소질이 있거나 운동에 소질있는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기회를 얻어서 성숙한 어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해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이 끝났지만 여전히 국경변경문제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이 있고, 아직은 휴전인 상태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경지역의 캄보디안들이 일상을 되찾고 캄보디아가 온전히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선교사역내용 및 선교후원 문의

- ☞ 카카오톡: jsound12
- ☞ 텔레그램: @BrightCAJMC
- ☞ 후원계좌: 농협 205101-52-121540 (예금주: 황의명)